

## 수련생 관점에서 본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

윤 슬 기 이 서 영 김 성 욱 조 병 주 최 승 원<sup>†</sup>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수련생들의 경험과 그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수련 과정이 갖는 다양한 함의점을 논의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1) 수련 과정을 모두 국내에서 경험하였으며, 2) 석사과정을 마친 지 3년 이내이면서, 수련 경험이 2년 이하이고, 3) 서울시 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이 설치되고 운영된 지 최소 5년이 경과한 병원에서 수련중인 연구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한 뒤,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6개의 영역에 대하여 2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1)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 2) 대학원 선택이유, 3) 병원 선택이유, 4)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5) 병원 수련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6) 수련 과정의 의미로 나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련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종합 논의하고,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 수련 과정, 수련모델,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승원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Tel : 02-901-8307 / E-mail : sungwonchoi73@gmail.com

임상심리학자란,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부적응과 불편감 및 장애를 이해하고 예언하며 치료하는 원리, 방법, 절차를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응용시키는 전문직이다(Resnick, 1991).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평가와 진단, 치료 혹은 개입, 자문, 연구, 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안창일, 2010). 그리고 임상심리학자에게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 그 내용을 응용시키는 과정까지 포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임상심리학자가 수행해야하는 복합적 역할에 상응하여,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과정 역시 복잡한 역사와 양상을 띠고 있다.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1949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보울더 총회(the Boulder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Clinical psychology)이다. 이 총회에서 심리학자들은 대학원 임상심리학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당시의 임상심리학자 훈련기법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의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자를 훈련시키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일정 수준의 표준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연구능력과 임상실습을 포괄적으로 훈련시키도록 하는 scientist-practitioner model이 탄생하게 되었고(Raimy, 1950), 이 모델은 오늘날에도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Benjamin & Baker, 2000b) 수련 과정과 관련된 결정, 판단, 주장, 철학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Baker & Benjamin, 2000a). 그러나 이 모델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주로 임상적 실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련생들에게 지나치게 방대한 과학자로서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Albee, 2000). 이후 1973년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

의 새로운 모델인 practitioner-scholar model이 제안되었다. 이 모델은 연구 훈련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고, 실무에서의 경험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 따라 새로운 학위 유형인 Psy.D 과정이 함께 탄생하였다. 두 모델이 제안된 이후, 1990년대 들어 경험주의에 기반을 둔 임상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있어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지향적 모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임상심리학의 기반은 과학에 있으며, 과학적 연구자로서의 훈련에 대한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practitioner-scholar model이 연구비중을 낮춘 Psy.D 학위를 제안한 것에 반대하며, 기존의 Ph.D 학위에 보다 경험적으로 지지된 임상적 방법론을 강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임상심리학에 있어서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하게 지지하는 clinical scientist model이 제안되었다(Andrew, 2010).

이렇듯, 미국의 경우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과정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각 수련기관이 특정모델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기관이 얼마나 그 모델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점수를 매겨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임상심리학자(licensed clinical psychology)의 양성과정은 대부분 scientist-practitioner model, practitioner-scholar model, clinical scientist model 중 하나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모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간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sup>1)</sup>

1) 대표적으로 American University, University of Kansas, Saint Louis University는 scientist-practitioner model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으로 Ph.D 학위를 수여하며

다양한 성격의 수련 과정이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에는 단일한 전문가 자격요건이 존재한다. 한국에서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은 세 가지로, 한국임상심리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필수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이론과정과 현장 실습으로 이뤄진 수련 과정을 갖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09; 보건복지부, 2010). 이 외,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 제도의 경우, 대학원 과정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학부 과정에서 필수 과목 이수와 일정 기간의 수련 혹은 실습 기간을 요하는 등 이론과 현장 실습을 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또한 대부분의 수련기관은 이러한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련기관 별 수련 내용은 필수 이수과목과 수련시간이라는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적이거나, 이를 제외한 여러 가지 수련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칙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은 임상심리학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에 외국의 수련 과정의 형식을 빌려와 만들어진 것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것이 현재의 학계 내 사정과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역시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 국내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과정에 관하여 논의된 바가 있기는 하나(김중술, 1981, 1983; 이현수, 1982), 임상심리학이 처음 도입된 초기에 다뤄진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임상심리학 교육과정을 처음 개설하는데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며,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 등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이 처음 개설된 지 약 50년이 지난 지금, 수련 과정 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요구는 무엇이며,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수련생들의 평가를 다루고 있다. 앞서 소개한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교육자의 입장, 즉 교수 및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논의된 것들이고 수련 과정을 실제 경험하는 학습자들이 수련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진 바가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김갑성, 2011; 임병학, 조호현, 2007).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이 수련 과정이 의도한 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실행 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는 수련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수련중인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들은

---

Clinical/research rating은 4이다. practitioner-scholar model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Baylor University,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로 Psy.D 학위를 수여하며 Clinical/research rating은 2이다. 마지막으로 Indiana University와 Northwestern University의 경우 clinical scientist model을 채택하여 Ph.D 학위를 수여하고 Clinical/research rating은 7이다(Andrew, 2010).

현재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가장 최신의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수련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수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수련 과정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하고자 수련 과정을 수련생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두었다. 첫 째, 본 연구는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가 목적이므로 두 가지 수련 과정(대학원 과정과 병원 수련 과정)을 모두 한국에서 경험한자로 선정하였다. 대학원 과정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해야하므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지 3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병원 수련 과정 3년차의 역할이 아랫년차 수련생의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련생의 관점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졸업 후 수련 2년차 이하인 자만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 째, 비교적 수련체계가 안정되었으며, 임상심리전문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 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 최소 5년이 경과한 병원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취지 및 진행방법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과정을 충족한 10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30대가 3명, 20대가 7명이고, 수련 1년차는 9명, 2년차는 1명 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자료 수집

자료는 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서울소재 대학병원 중 임의로 선정한 7개 병원의 슈퍼바이저 혹은 수련생에게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이메일 혹은 문자를 통해 연락을 취하여 연구 목적을 밝힌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련생 1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모든 수련생들은 슈퍼바이저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과 전화로 사전 약속을 잡았으며, 이메일로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 참여자 | 성별 | 연령(만) | 수련 기관 | 수련 기간 | 출신 대학원 |
|-----|----|-------|-------|-------|--------|
| 1   | 여  | 30 대  | 가 병원  | 1     | A대학교   |
| 2   | 여  | 20 대  | 나 병원  | 2     | B대학교   |
| 3   | 여  | 20 대  | 다 병원  | 1     | C대학교   |
| 4   | 여  | 20 대  | 다 병원  | 1     | A대학교   |
| 5   | 여  | 20 대  | 라 병원  | 1     | D대학교   |
| 6   | 여  | 20 대  | 마 병원  | 1     | B대학교   |
| 7   | 여  | 30 대  | 마 병원  | 1     | E대학교   |
| 8   | 여  | 20 대  | 바 병원  | 1     | F대학교   |
| 9   | 여  | 20 대  | 사 병원  | 1     | A대학교   |
| 10  | 여  | 30 대  | 사 병원  | 1     | G대학교   |

면담 내용을 사전 공지하였다. 면담 장소는 수련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 또는 근무지 근처로 하였으며, 면담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전화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되었다.

###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질적 연구의 자료가 될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대학원 과정과 병원 수련 과정이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련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 3명이 1차 질문지를 작성한 후, 감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수정한 뒤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최종 질문지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련생의 일반적 사항(인적사항, 대학원 커리큘럼, 병원 커리큘럼 등)에 관한 내용은 면담 시 면담자의 설명에 따라 직접 수기 작성하였다.

### 면담자

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3명의 연구자가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자들은 현재 임상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에 있으며, 직전 학기에 질적 연구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다. 이 수업에서는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실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심리학 박사이자 본 연구의 공동 제4저자가 강의와 자료 분석을 지도하였다. 면담자들은 실제 연구개시에 앞서서 제4저자에게 합의적 질적 연구에 적합한 질문방식 및 답변을 이끌어내는 기술, 인터뷰에서의 주의사항을 교육받았다. 세 번의 훈련

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을 종료하였다.

### 자료의 분석

#### 분석팀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의하면 분석팀에는 3명, 감사자는 1~2명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Hill, Thompson, Willians, Hess & Ladany,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연구자가 분석에 모두 참여하였고, 2명의 연구자가 감사자로서 참여하여 총 5명의 분석팀을 구성하였다.

#### 감사자

연구에는 총 2명의 연구자가 감사자로서 참여하였으며, 감사자 중 1명은 임상심리전문가이며 현재 임상심리학 교수이고, 1명은 상담심리학 박사로 다수의 질적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2명의 감사자의 지도하에 면담지를 구성하였으며, 영역 부호화 과정에서 6차례의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쳤으며, 요약 반응 구성 과정에서 10차례 이상, 교차 분석과정에서 1차례의 검토 및 합의 과정을 거쳤다.

#### 분석절차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면담을 진행했던 3명의 연구자가 합의적인 과정을 통해 내용과 맥락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의 부호화 및 감사.** 이 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보나 자료들

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수집된 10개의 축어록에 대해 3명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들로 영역을 분류한 뒤, 각자 분석한 자료에 대해 합의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감사자는 영역의 부호와 과정에서 검토 및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석팀과 감사자의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6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요약반응 구성 및 감사.** 분석팀은 도출된 영역 내의 모든 사례에 대하여 요약반응을 구성하였다. 요약반응의 구성은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함축적인 언어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의 의미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감사자는 요약반응 구성에 과도한 추론은 없었는지,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석팀과 감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결정하였다.

**교차분석 및 감사.** 교차분석은 분석팀이 모여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들로 묶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또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의 빈도를 계산하여 Hill et al.(2005)의 분석방법에) 따라 i) 모든 사례에 보고된 내용은 일반적인 범주, ii) 50%이상 보고되는 내용은 전형적인 범주, iii) 50%미만 보고되는 내용은 변동적인 범주, iv) 한 두 사례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드문 범주로 분류하였다. 감사자는 교차분석에 대하여 검토 및 피드백을 제공해주었고, 분석팀과 감사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자와 분석팀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결 과

본 장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련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수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절차에 따라 총 6개 영역에 대하여 2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현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경험중인 수련생들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알아본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은 수련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수련생들이 수련할 기관으로 각각 대학원과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본 것으로 각각 2개의 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이미 지나온 경험으로서 과거의 대학원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총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수련생들이 현재의 수련기관인 병원에서의 수련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병원 수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며, 총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역은 수련생들이 각각의 수련 과정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범주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소개하고, 각 범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면담

표 2. 수련 과정의 경험과 평가

| 영역                     | 범주  | 응답 빈도   |
|------------------------|---|---------|
| 1.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   | 1) 학문 및 직업적 흥미                            | 전형적(6)  |
|                        | 2)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음               | 변동적(4)  |
| 2. 대학원 선택 이유           | 1) 지도교수의 학문적 성향에 대한 선호                    | 변동적(4)  |
|                        | 2)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                            | 변동적(4)  |
| 3. 병원 선택 이유            | 1) 선택의 여지없이 합격한 곳에 오게 됨                   | 전형적(5)  |
|                        | 2) 다양한 환자를 보고 싶음                          | 변동적(3)  |
|                        | 3) 관심분야에 특화된 병원을 선택함                      | 드문(2)   |
|                        | 4) 급여여부                                   | 드문(1)   |
| 4. 대학원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 1) 필수과목의 중요성을 알게 됨                        | 일반적(10) |
|                        | 2)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배울 필요가 있음                | 전형적(9)  |
|                        | 3)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도움이 됨                    | 전형적(9)  |
|                        | 4) 이론습득의 중요성을 알게 됨                        | 전형적(6)  |
|                        | 5) 석사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지속시키는 것의 중요성             | 전형적(5)  |
|                        | 6) 연구경험이 도움이 됨                            | 변동적(3)  |
|                        | 7) 실습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변동적(3)  |
|                        | 8)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                            | 변동적(3)  |
| 5. 병원 수련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 1) 개인적인 공부 및 연구 시간이 부족함                   | 일반적(10) |
|                        | 2)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전형적(7)  |
|                        | 3) 열악한 처우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함                    | 전형적(7)  |
|                        | 4) 심리치료를 위한 체계적 훈련 기회의 부족                 | 전형적(6)  |
|                        | 5) 이론적 내용을 실제 사례에 통합하는 것을 훈련함             | 전형적(5)  |
|                        | 6)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함                        | 드문(2)   |
| 6. 수련 과정의 의미           | 1) 대학원 과정은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목표를 정하는 시기           | 전형적(5)  |
|                        | 2) 대학원 과정은 지지집단을 갖게 되는 시기                 | 변동적(4)  |
|                        | 3) 병원 수련 과정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 | 변동적(4)  |
|                        | 4) 전체 수련 과정은 임상심리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의미함           | 드문(2)   |
|                        | 5) 전체 수련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를 이룬 것    | 드문(2)   |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알아보았다. 수련생들이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크게 2가지 범주로 보고되었다.

**학문 및 직업적 흥미**

수련생들은 임상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와 임상심리학자가 하는 일에 대한 흥미로 인해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였다.

저는 학부도 심리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분야가 가장 실용적이고 좋았어요. 직접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이요. (수련생 9)

심리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그 환자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활동들이 흥미롭게 느껴졌고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고, 직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졌어요. (수련생 10)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배우거나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에 개입하는 직업 활동에 대한 흥미로움이 이들에게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임상심리학이 갖는 ‘실용성’, 즉 환자

를 만나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동기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음**

또한 수련생들은 공통적으로 이타적 관심, 즉 타인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결심하였다고 답하였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에 대해 일단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가장 궁극적이죠. 그러한 소외계층들은 정신장애를 가질 확률도 높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련생 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들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결심하였다.

**대학원 선택 이유**

한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과 병원 혹은 기타 실습수련기관에서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영역에서는 임상심리학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원 중에서 연구참여자가 졸업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도교수의 학문적 성향에 대한 선호**

연구참여자들은 지도교수의 수업방식 및 연구 분야 등 지도교수가 가진 학문적인 성향에 대학원 선택이유로 언급하였다.



대학교 때부터 교수님을 뵈오면서 수업 방식, 연구 분야, 개인적인 성향까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웠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학생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좋았어요. (수련생 5)

진학할 당시에는 00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그쪽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관련된 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련생 10)

###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

연구참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전문가 자격 요건 외에 각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커리큘럼을 대학원 선택이유로 언급하였다.

학부를 00대학교에서 이수했기 때문에 수업방식, 커리큘럼에 신뢰가 있었어요. (수련생 1)

임상과 상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수련생 6)

이 외, 대학원을 선택하는 이유의 기타 의견으로 장학금 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도 언급되었다.

### 병원 선택 이유

대학원에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마친 이후 수련생들은 임상 실무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수련생들은 수련을 받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지원을 한 뒤 각 병원에서 진행되는 수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본 영역에서는 수련생들이 임상 실무에 대한 훈련을 받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선택의 여지없이 합격한 곳에 오게 됨

연구에 참여한 수련생 중 반 이상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로 ‘합격된 곳에 가게 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수련생들은 병원의 수련 커리큘럼과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원에 지원을 한 뒤 합격한 곳에 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 수련생은 자신이 병원을 선택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워낙에 시험을 많이 보고 많이 떨어지니까 붙은 병원이면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00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는 잘 몰랐어요. (수련생 6)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병원이 나를 선택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생 10)

### 다양한 환자를 보고 싶음

몇몇 수련생들은 병원수련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환자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은 수련을 받고자 하는 병원이 다양한 장애군의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하였다.

저는 일단은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을 원했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일이 저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상담센터 같은 곳은 제외했어요. (수련생 9)

### 관심분야에 특화된 병원을 선택함

어떤 수련생들은 특정 분야 혹은 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특정 병원을 선택하거나 배제하였다. 이들에게는 병원 수련 과정을 통해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되었다.

저는 소아, 아동, 청소년 집단에 관심이 많은데 00병원은 이 집단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 치료와 프로그램이 매우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ADHD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집단과 관련된 연구회들도 많이 개최되었고. 그래서 이 집단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00 병원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수련생 5)

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불안장애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00병원 같은 곳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데서는 그런 분을 보기 힘들니까 배제를 하죠. (수련생 9)

### 급여여부

현재 국내의 임상심리 병원 수련 과정은 유

급인 곳과 무급인 곳이 있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의 수련생만이 수련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급여 여부를 선택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련생 역시 급여여부가 첫째 선택기준이 되지 않는 못하였고, 다른 선택기준과 함께 고려되는 사항으로, 급여 여부가 수련병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이어야 됐어요. 무급은 아예 지원을 안했어요. 3년이고 서울 시내이고 대형병원인데도 무급이면 지원을 안했어요. (수련생 9)

### 대학원 석사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다음은 현재 병원에서 실습수련을 받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이 과거 대학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필수과목의 중요성을 알게 됨

현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위한 수련 요건은 수련생들로 하여금 석사과정에서 총 7개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09; 보건복지부, 2010). 이 중 4개의 과목(정신 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방법론)은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있는 필수과목이며, 나머지 3과목은 25개의 과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수련생들은 현재 병원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석사과정에서 배웠던 많은 이론적 내용들 중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과목인 정신 병리학, 심리평가

과목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양한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들의 중요성을 수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범주는 모든 사례에서 경험되었다. 다음은 정신 병리학 과목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이다.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건 3~4개월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환자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어떤 병의 발현을 예기하는 것인가,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병리를 공부하는 게 가장 필요한 분야인 것 같고,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석사 때 병리를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련생 8)

이와 같이 수련생들은 정신 병리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훈련이 대학원 과정에서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채점하는 것 등 연습을 통해 단련될 수 있는 부분은 병원 현장에서의 수련을 통해 훈련을 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는 정신 병리학적 지식을 탄탄하고 자세하게 익혀두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환자를 직접 접하고 새로운 병리를 접하게 되더라도 그에 관한 정신 병리학적 기반이 탄탄할 때 그것을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정신병리학적 지식의 기반을 다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은 심리평가 과목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이다.

로샤 같은 심리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

요. 석사 때는 잘 모르고 배웠었는데 더 열심히 배워뒀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어렵기도 하지만, 또 되게 정보가 많이 나와요.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환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심리평가와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환자에 대해 더 많이 보이고,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수련생 6)

로샤 같은 경우, 저희는 로샤에 사실 많이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샤검사 자체를 1년씩 투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로샤검사를 저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생 10)

이와 같이 수련생들은 환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심리평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심리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들이 탄탄할수록 평가를 통해 환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환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잘 습득해 둘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 혹은 심리평가 과목을 한 과목으로 끝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배울 필요가 있음**

수련생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경험은 해봄으로써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중요시 되는 과목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중 첫 번

째는 정신역동과목에 대한 것이다.

저는 아직 1년차고 일을 별로 안 해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면 psychodynamic formulation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병리에 이르렀는지 역동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환자를 볼 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요. (수련생 5)

막상 현장에 나오면 많은 의사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병원은 정신분석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세계였으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학원과정에서 많이 배우진 못했으니까요. (수련생 10)

수련생들은 환자의 병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역동적 틀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정신역동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대학원 과정에서 미리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련생들은 정신역동적 지식이 병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함에도 실제로 자신의 대학원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정신역동 과목과 더불어 신경 및 생리심리학적 지식 역시 필수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의학 장면 내에서 일해야 하는 환경적인 요구가 수련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성을 언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을 모두 끝마친 뒤에도,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의학 분야와 밀접한 장면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신경 및 생리학적 지식은 수련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병원 장면에 오면 보통 신경심리 검사들을 많이 해요. 치매검사를 일주일에 하나씩은 하게 되는데, 보고서를 쓸 때 항상 힘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꾸준히 계속 좀 개설이 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무래도 치매 환자들이 병원장면에서 많이 오기도 하니까요. (수련생 6)

####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도움이 됨

수련생들은 이론적 내용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론을 배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실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미리 임상현장을 체험해 보는 것이 이론을 더 잘 습득하고, 실무를 더 잘 준비하게 하며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습 경험이 있다는 건 임상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련생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 수도 있고,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일인지, 슈퍼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수련생 2)

실습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나간다는 것 일단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관을 잘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련생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검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지식 같은 걸 좀 더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현장의 지식들을 가져 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원에 있을 때는 병원 현장이 약간 막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환자분들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하루업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솔직히 감이 안 오잖아요. 되게 막연한 꿈처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생각하던 거랑 다른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고, 주된 업무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바쁘고, 병원 안에서의 역할은 어떠한고, 지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여러모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수련생 5)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실습경험을 해봄으로써 후에 일을 하게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 과정에서의 실습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현장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임상심리사가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체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 분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해야 하는 병원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임상심리학자가 갖는 지위 및 구체적 역할을 미리 아는 것은 병원수련에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 이론습득의 중요성을 알게 됨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의 핵심으로서 전반

적인 심리학적 지식에 대해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언급하였다. 대학원에서는 필수 및 선택 과목의 수강이외에도 논문작성, 실습수련, 학회참석, 그 외 각 대학원에 따라 특수하게 주어지는 다양한 일 등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과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확실하게 익혀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는 문자로만 배우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격적인 것, 환경적인 것, 신체적인 것 등 전체적인 것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환자 보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기반인 것 같아요. (수련생 4)

대학원 때는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병원실무는) 대학원 나오면 다 배울 건데 ... 나중에 논문학기 때는 논문을 쓰니까 이론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부에 치중을 많이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대학원의 목표에 더 충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생 10)

이렇듯 대학원 과정에서 접하는 이론적 지식들은 실제 사례와 함께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 수련을 하며 환자를 직접 만날 때, 석사과정에서 익혀두었던 다양한 이론적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였

다.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익혀두는 것은 환자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였다. 물론, 실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수련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가장 충실해야 할 부분은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석사 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지속시키는 것의 중요성

석사과정에서 이론적 내용을 다양하게 접하고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수련 과정까지 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방대한 양의 수업내용을 수업진도에 맞추어 익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도 많은 시간이 '스터디 활동'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수련생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수련 과정에까지 제대로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병원 수련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또 다시 공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실무 현장에 대한 지식 없이 방대한 양의 이론적 지식들을 한꺼번에 습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몇 수련생들은 이론적 지식의 지속성의 문제를 수업과 스터디활동에서 사례를 함께 보는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학교에서 배웠던 걸 충분히 익혔다면 어려움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그때그때는 알아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

식이. 사실 학교수업에서 배운 걸 온전히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내 걸로 만들고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논문 쓰고 끝이니까. 좀 아쉬워요. (수련생 5)

사례를 통해 배우는 수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냥 지식만 배우면 줄다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교수님이 우울증 환자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너무 이해가 안돼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 환자를 계속 붙들고 면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교수님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수련생 8)

지금은 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들은 다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추가가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기존 커리큘럼을 따르기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을 더 늘리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련생 3)

### 연구경험이 도움이 됨

한편, 수련생들은 필수적인 이론적 내용을 습득하는 것 외에 대학원 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연구경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도 하였다.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좋았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논문을 써보고, 박사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개인적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도 좋았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자격 취득 과정에도 도움이 되어서 좋았어요. (수련생 5)

병원 과정은 평가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 측면에 치우치기 때문에 개인적 관심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에서는 수련생들이 임상심리학을 시작하게 된 학문적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해 학문적 흥미와 관련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었다.

#### 실습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한편, 일부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실습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다른 학교는 그 자체 내에서 뭐가 실습 관련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원 경험에서 기술적인 것을 쌓고 오는 것은 수련 과정에서 다 중화가 되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도 병원에 와서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깐 결국에는 똑같아 지게 되요. (중략) 내 동기 중에 다른 병원에서 이미 1년을 수련을 받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숙하게 검사를 해내고 더 빨리 보고서를 써내고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점점 비슷해져서 별개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서 실무를 완벽히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병원에서 슈퍼바이저들이 지적하게 되는 부분은 '능숙하지 않다'가 아니라 '꼼꼼하지 않다'일거예요. (수련생 2)

대학원에서의 실습경험이 병원수련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적인 능숙함은 3년이라는 병원 수련기간 동안 충분히 숙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에서는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의 경험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과 더불어 친밀감이나 동질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기들, 선후배 간에 끈끈하게 도와주고 많은 걸 공유하는 그런 학업적인 분위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동기들과 선후배간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학업적이고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대학원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수련생 6)

대학원 시절 연구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유로워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수련생 8)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랐지만, 커리큘럼과 같은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는지가 수련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병원수련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

#### 개인적인 공부 및 연구 시간이 부족함

수련생들은 병원수련을 통해 다양한 환자를 경험함으로써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연구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범주는 모든 사례에서 언급되었다.

정말 들어와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깐. 한다고 해도 정말 발뺌독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이니깐, 그런 게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일에 치여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알겠고, 공부하고 싶고, 그렇지만 일은 너무 많고. (수련생 1)

저는 연구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졸업논문도 정리해서 내보고 싶고, 졸업논문 이외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싶어요. (수련생 8)

수련생들은 환자를 직접 만나면서 특정 이론에 대해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환자를 대하는 면담 기술에 대해 부족함을 느껴 이를 보완하고자 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픈 욕심이 있기도 하였다. 하

지만, 수련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부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많이 보고하였다.

####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됨

수련생들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환자를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수련 과정의 긍정적 측면으로 응답하였다. 다양한 장애의 환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했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심 있었던 분야의 장애를 가진 환자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관심분야에 대한 욕구도 충족될 수 있었다.

좋은 점은 사례를 다양하게 많이 본다는 것이 좋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수련생 3)

좋았던 점은 환자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 확실히 대학원에서 책으로만 보는 거랑 직접 환자를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적인 지식이 많이 늘었어요. 또 병원에서는 의국이라 같이 세미나, 사례회의 같은 걸 하다 보니 학문적인 견해도 넓혀지는 기회인 것 같고요. (수련생 6)

#### 열악한 처우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함

수련생들은 배우는 역할과 일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매우 부족하였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할 여유는 물론 기본적인 여가 시간도 매우 부족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 비해 급여나



환경적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일 아쉬워요. 그게 제일 크네요. 업무량이나 제가 수련을 받기 위해서 들었던 학비라든지 들었던 시간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많지 않죠. 별 다른 기술 없이 그냥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 알바를 해도 이런 비슷한 돈을 받을 텐데 내가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 받아야 하나 들게끔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면에서 많이 아쉽죠. (수련생 9)

각오는 하고 왔지만 아무래도 개인시간이 부족한 게 힘들어요. 저희가 빨리 끝나는 하지만 끝나고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새벽까지도 쓰고, 토요일, 일요일도 안 나오지만, 계속 보고서를 쓰거든요. (수련생 4)

#### 심리치료를 위한 체계적 수련 기회의 부족

병원 업무의 대부분이 심리검사와 평가보고서 작성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때문에 수련생들은 치료적 측면에서의 수련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수련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처음으로 환자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훈련 외에 치료를 위한 면담법과 상담 기법에 대해서는 훈련이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환자분들 면담할 때는 좀 한계를 느끼거든요. 제한된 시간이 있고 환자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니까요. 검사만

위주로 하고 끝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상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식을 얻는다면 면담도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랑 만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수련생 5)

#### 이론적 내용을 실제 사례에 통합하는 것을 훈련함

수련생들은 석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양하게 습득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병원과정에서는 석사과정에서 배운 개별적인 이론들을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험문제 같은 게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시험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의학을 따로 보고, 병리를 공부를 따로 하고, DSM을 따로 보고 치료를 따로 보고, 석사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따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 공황장애 환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려면, 정신의학에서의 공황장애, DSM에서의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료에서의 공황장애를 어떻게 다루고, 하나하나의 검사 사인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내 머리 속에 통합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석사 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게 석사 때와 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석사 때는 워낙 막 공부할게 많다보니까 집어넣고, 병원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잘 꺼내서 환자에 맞게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를 슈퍼바이저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수련생 1)

수련생들은 병원 수련 과정에서는 환자를 직접 대하고 또 실질적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을 통합하고 적절히 꺼내 쓸 수 있고 또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병원 수련 과정에서 이러한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환자를 대함에 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훈련을 대학원 과정에서 미리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론을 먼저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론을 최대한 전반적으로 탄탄히 습득하는 정도가 가장 최선이며, 이것이 후에 병원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함

대학원 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에서 도출된 내용과 같이 수련생들은 병원 수련 과정에서도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답하였다. 단, 대학원 과정에서는 같은 연구실 혹은 학과내의 동료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중요하였다면, 병원은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일하고 있으며, 슈퍼바이저와 함께 일해야 하는 특성 상, 타 부서와의 관계 및 슈퍼바이저와의 인간적 관계가 수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우호적 인간관계를 위해 책임감이나 배려심과 같은 인성적 측면이 중요시된다고 응답하였다.

저희병원에서 좋은 점은 사실 병원에 오면 이렇게 심리파트는 소수고 심리파트 외에 전공의 선생님도 계시고, 사회사업파트도 있고 간호파트도 있는데 이 파트들이 서로 갈등관계가 있거나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가 서

로를 서포트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관계가 좋아서 그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수련 받는 것만으로 힘든데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3년 수련받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일 때문에 힘든 것도 그렇지만 일로도 힘든데 인간관계도 힘들면 더 수련이 힘들어지죠. (수련생 9)

병원은 아무래도 공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상하관계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배려심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는 건 마찬가지로겠죠? 배려심이 가장 대두되는 단면이 아닌가요 싶어요. (수련생 7)

#### 수련 과정의 의미

연구자들은 수련생들에게 그들이 거쳐 온 과거로서의 대학원 경험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병원수련 과정,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모든 수련 과정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알아보았다.

#### 대학원 과정은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목표를 정하는 시기

수련생들에게 있어 과거의 대학원 과정은 임상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기로 보고되었다. 사실상 학부의 심리학과에서는 임상심리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을 통해 임상심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배우게 된다. 따라서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임상심리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경험해보게 되는

것이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수련생들은 임상 심리학이란 어떤 것이며, 그 안에 어떤 세부 분야가 존재하고, 또 그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련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병원 수련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들을 선별을 하고 생각할 수 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수련생 7)

나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병원수련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표로 가기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 인거죠. 단기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대학원 시간에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서 실무경험 하면서 다른 눈이 열리겠지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면서 관심분야를 찾고 좀 먼 장기적인 먼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될 지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병원 수련은 큰 산이잖아요.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고민하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목표를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련생 2)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수련생 3)

### 대학원 과정은 지지집단을 갖게 되는 시기

어떤 수련생들에게 있어 대학원과정은 임상 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대학원과정에서의 동료들은 같은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진로 및 직업적 고민에 대해 소통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대학원 졸업 후 접하게 되는 병원 수련 과정에서는 수련생의 수도 적을뿐더러, 매 순간 처리해할 업무로 인해 친밀하게 교류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따라서 수련생들은 대학원과정에서 동질집단과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지지집단을 갖게 된 것이 큰 의미라고 하였다).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 수련 현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은 그렇게 앞으로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생 5)

저는 대학원 과정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점에서 좋았던 시기로 생각하거든요. 대학원에서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게 좋았어요. 동기라든지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수련생 9)

**병원 수련 과정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

수련생들은 병원 수련 과정에서 임상심리학자가 되어가는 실질적인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병원 수련 과정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즉 대학원 과정에서는 배우는 역할에만 치중했다면 병원 수련 과정에서는 배우는 역할과 더불어 병원 실무도 함께 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주어지는 업무 혹은 학습량이 매우 많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련생들은 병원 수련 과정을 매우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만큼 임상가로서의 능력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또 어떤 수련생은 힘든 시기를 거치는 것이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힘들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에 달렸고, 나를 시험하는 기간 같아요.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잘 버티고 나가느냐, 내가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를 시험해볼 수 있는 시간 같아요. (수련생 6)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내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수련생 8)

여러 질병의 환자들, 그 질병의 아주 전형적인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아주 단기간

내에 가장 가깝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만 유일하게 나는 그런 심한 정도의 환자의 전형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수련생 5)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울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수련이니까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환자를 다 볼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간. (수련생 10)

**전체 수련 과정은 임상심리전문가로서의 시작을 의미함**

수련생들에게 있어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은 수련 과정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새로운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수련생들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원 입학, 대학원 졸업, 병원 수련 시험통과, 병원 수련 과정 수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안에서의 경쟁이나 시간적, 체력적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수련생들은 이러한 과정들 자체를 목표로 의미화하고 있지 않았다. 수련생들은 전문가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각 과정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준비과정이며 수련 과정을 마친 것은 개인의 목표를 위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작을 의미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  
같아요. (수련생 3)

자립의 의미가 있다. 어떤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치료  
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자립의 의미.  
내가 하고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  
나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  
다. 내가 하고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발판  
역할을 하는 것 뿐 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큰 목표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내  
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이다. (수련생 5)

### 전체 수련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를 이룬 것

어떤 수련생들에게 있어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의 한 가지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  
한 이러한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  
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 즉 임상전문가로서  
일한다는 자아실현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이라  
고 의미화 하였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룬  
느낌일 것 같다. (수련생 8)

학부 때부터 이쪽 일에 관심이 계속 많  
았고, 생각했던 일이라...일단은 자아실현이  
다. 1학년 때부터 이쪽일 하고 싶었고, 오  
랫동안 염원했던 일을 성취하는 거니깐 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전문가로서 일한  
다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수련생 6)

##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  
에서 수련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수  
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  
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수련 과정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  
를 함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6개의  
영역에 대하여 2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련생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된 학문적, 직업적 흥미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동기로 임상심리학자가 되고  
자 하였다. 이들에게 임상심리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련생들  
은 이러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  
이라는 학문적 수련의 장소와 병원이라는 임  
상적 수련의 장소를 찾게 된다. 이들이 대학  
원을 선택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학문적 성향,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 등이 고려되었다. 하지  
만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합  
격된 병원에 왔다는 보고가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환자를 보고 싶다는 욕구,  
관심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선호가  
작용하였다. 아주 드물게 급여의 여부가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수  
련생들은 대학원 선택보다는 병원선택에 있어  
서 많은 제한점들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병원 수련 1~2년차의 수련생들이 평가하는  
대학원 과정은 임상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목  
을 배웠다는 것,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이론적인 공부의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연구를 진행했던 것,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수련생들은 대학원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지속되지 않는 어려움,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심리 과목의 부재 등은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였다. 수련생들은 병원수련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 볼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병원수련 과정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개인적인 연구나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열악한 처우 및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심리치료를 위한 체계적 수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병원은 많은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각자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실성, 책임, 협동을 배우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에 대해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목표를 정하고 지지집단을 갖게 되는 시기로, 병원수련 과정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의미화하였으며, 전체 수련 과정에 대해 임상심리전문가로서의 시작과 인생의 목표 중의 하나를 이룬 것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수련 과정을 통해 수련생들이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했던 동기를 충족할 수 있었다. 수련생들이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동기는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욕구에 대한 것이었다. 병원 수련 과정에 대한 범주 중 “풍부한 환자 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병원 수련 과정에서는 직접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타적 욕구와 관련된 동기는 대학원 과정보다는 병원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3. 수련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 긍정적 평가  |
|---|
| <p><b>수련 과정을 통해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고자하는 동기가 충족됨</b><br/> <b>대학원 과정의 필수 이수과목</b><br/>                     대학원에서 현장 관련 경험을 쌓는 것</p>  |
| 부정적 평가  |
| <p><b>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부족</b><br/>                     대학원 과정에서의 이론내용이 지속되기 어려움<br/>                     병원 수련 과정에서 개인적인 공부 및 연구 시간이 부족함<br/> <b>병원 수련 과정 내 열악한 처우</b><br/>                     심리평가에 치중된 병원 수련내용</p> |

심층면담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모든 수련생에게 했던 추가 질문 중 ‘수련 과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떤 수련생들은 자신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동기는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실제 업무에 흥미를 느껴 임상심리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 동기도 수련 과정 전반에 걸쳐서 충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생들은 대학원과정이 이론적 측면에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에서의 연구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병원수련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습득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학문적 흥미로 수련 과정을 시작하게 된 수련생들의 동기는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충족될 수 있었으며, 실무에 대

한 흥미로 수련 과정을 시작하게 된 수련생들의 동기는 주로 병원 수련 과정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임상심리학자가 되고자하는 이들의 동기는 현재의 수련 과정 전반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련생의 의견과 학회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5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이수과목들이다.

과목명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자격요건 모두 임상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대학원 과정에서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방법론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련생들이 대학원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과목들과 일치한다. 수련생들 역시 대학원과정에서는 이론적 기반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연구방법론

표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 제 5조(인정과목)   |   |
|--|---|
|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 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   |
| 가. 필수과목 (4과목):   |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 나. 선택과목 (25과목 중 3과목):  |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계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 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습성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 1) |

보건복지부 (2010).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 11, p. 89 에서 인용.

표 5.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2장 제 3조

|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  |
|---|
| (1)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 (2)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심리진단(또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
| (3)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

한국임상심리학회 (2009).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자격규정. [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 에서 인용

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수련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대학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론내용에 대하여 학회 및 보건복지부의 요구사항과 수련생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수련에 필요한 정보가 수련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 임상심리대학원의 경우, 학교나 지도교수의 성향에 따라 대학원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지도교수의 전공분야에 따라 수업 구성도 조금씩 달라지고, 진행하게 되는 연구의 주제나 실습경험도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개설 가능한 과목, 지도교수의 기본적인 이력 및 학과 내 규칙 등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 임상수련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해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병원마다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수련생활을 하게 되는지

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병원 수련을 마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적 선택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대학원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수련생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련 과정 전 과정에 걸쳐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보니, 많은 수련 준비생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련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많은 학생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수련 과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유추를 기반으로 수련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의 경우와 달리 임상심리교육 및 수련과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The Education Directorate of APA)



이 따로 존재한다(Michelle, Miriam & Emery, 2015). 이 기관 내에는 특히 심리학 교육 및 수련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학원 과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며,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또한 APA-Accredited Programs 라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석사 및 박사 이후의 수련(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인증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나 관리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준비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수련생들로 하여금 수련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련기관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수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수련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보의 질을 관리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및 병원 수련 과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위해 실제 수련을 경험한 수련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에 반영하며, 그러한 의견을 수련생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내 심리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 과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련 과정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의 질 관리와 공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병원 임상수련에 대한 수련생들의 평가를 종합해볼 때, 수련생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10명의 수련생 중 7명의 수련생이 임금 및 근무시간 등 처우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응답자들 모두는 일정한 급여와 근로기준이 명시된 ‘유급’ 수련생의 지위임에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임상심리수련기관 중에는 수련생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무급 수련생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수련생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연구에서 55곳의 수련기관 중 14곳(25.5%)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고, 급여를 제공하는 곳의 월평균 지급액도 125만 4천원으로 정도여서(양수, 2007), 연간 약 1,2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의 월평균 지급액이 206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급여수준이 매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연구원, 2014).

임금과 함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개선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생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례를 깊이있게 공부하거나 연구 활동과 연계할 여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련생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지위가 임상실무를 배워나가야 하는 수련생이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병원의 관점에서는 수익을 담당하는 직원의 신분일 수 밖에 없는 이중적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수련생들에게 직무스트레스원이 되며, 수련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직무소진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최윤이 & 심숙영, 1999; 황중귀 & 배성희, 2014). 따라서 병원 수련제도와 관련하여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총 54개의 수련기관 중 21곳(38.9%)은 수련생과 수련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수, 2007). 수련생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질차상의 보완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수련 과정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련생들은 같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수련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적 성향에 따라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련 체제로는 이러한 다양한 진로적 성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단일한 체제로 다양한 수련생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과정을 한 명의 수련생에게서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필요치 않은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련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온 일부 연구자들은, 한 사람의 임상심리학자가 두 분야에 동시에 재능을 갖는 것이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Albee, 1970; Albee & Loeffler, 1971; Clark, 1957). 따라서 수련생 개개인이 희망하는 미래의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보다 집중적이고 실용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련 과정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수련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병원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수련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 수련 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대상자가 수련 1, 2년차로 한정됨에 따라 수련 3년차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는 견해의 폭이 좁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년차마다 상이한 업무분담이 배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년차의 수련생도 연구에 포함한다면, 병원수련 과정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수련생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자들이 현재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임상심리전문가 과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련 과정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 또한 수련 과정에 평가를 보다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의 참여자들이 현재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 과정과 병원 수련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현재 병원수련 과정에 있는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정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원과 수련생은 종속관계로 현재 수련 받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조

심스러운 위치에 있기에, 병원수련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병원 수련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련제도 설립 5년차 이상인 대학병원을 선정하였고, 질적 연구의 특성상 모든 병원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었기에, 임상심리전문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의 대학병원까지 연구범위를 넓힌다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수련생의 입장에서 살펴 본 연구라는 점, 수련 과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제 10조의2제3항.
- 김갑성 (2011).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실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22.
- 김중술 (1981).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수련의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1, 28-29.
- 김중술 (1983). 임상심리학의 새로운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및 상담*, 4(1), 3-6.
- 보건복지부 (2010).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발간지, 11, 89.
- 서울연구원 (2014).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서울: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 안창일 (2010). *임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양수 (2007).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질 관리 방안. 서울: 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 이현수 (1982).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그 회고와 전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3-11.
- 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인턴 상담원의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33-859.
- 임병학, 조호현 (2007). SERVQUAL과 QFD의 통합모형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 대학의 학생관점에서. *한국자료분석학회*, 9(5), 24-35.
- 최윤이, 심숙영 (1999). 근무환경에 따른 유아교육 교사의 소진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 133-148.
- 한국임상심리학회 (2009).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자격규정. [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 에서 2014. 4. 15 자료 얻음.
- 황종귀, 배성희 (201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8(2), 227-239.
- Albee, G. W. (1970). The uncertain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25(12), 1071-1080
- Albee, G. W. (2000). The boulder model's fatal flaw. *American Psychologist*, 55(2), 247-248.
- Albee, G. W., & Loeffler, E. (1971) Role conflicts

- in psychology and their implications for a reevaluation of training models. *Canadian Psychologist/Psychologie canadienne*, 12(4), 465-481.
- Andrew, M. P. (2010).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Practice, and Culture*. CA: Sage Publications.
- Baker, D. B., & Benjamin, L. T. Jr. (2000a). The affirm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A look back at boulder. *American Psychologist*, 55(2), 241-247.
- Benjamin, L. T. Jr., & Baker, D. B. (2000b). Boulder at 50: Introduction to the s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2), 233-236.
- Clark, K. E. (1957). *America's psychologis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Michelle M. P., Miriam E. T., & Emery Mahoney. (2015). Internship attainment and program police: Trends in APA accredited school psychology programs. *Psychology in the schools*, 52(10), 1008-1019
- Raimy, V. C. (1950). *Training in clinical psychology*. NY: Prentice-Hall.
- Resnick, J. H. (1991). Finally, a definition of clinical psychology: A message from the president, division 12. *The Clinical Psychologist*, 44, 3-11.
- 원고접수일 : 2016. 06.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6. 29.  
게재결정일 : 2016. 06. 30.

## Evaluations of training courses of clinical psychologist from the trainees' perspective

Seulki Yoon    Seoyoung Lee    Sungwook Kim    Byeongjoo cho    Sungwo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trainees regarding the training courses of professional clinical psychology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current training courses. The following are the selection criteria. 1) Having undergone all of the training course in Korea (graduate program and hospital training), 2) Having finished graduate program within 3 years or experienced hospital training in the last 2 years, 3) Having trained in a hospital that has been established for more than 5 years and with at least 10 interviewed trainees. According to the criteria, we recruited 10 trainees. After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 analyzed the data accordance with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analysis revealed 6 themes and 27 categories: 1) motivation for wanting to be a clinical psychologist, 2) reason for choosing the particular graduate school, 3) reason for choosing the particular hospital, 4) experience and evaluation during the graduate program, 5) experience and evaluation during hospital practice courses, and 6) the meaning of training courses. Based on the results, positive evaluations and negative evaluations are comprehensively discussed, and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negative aspects are provided.

*Key words* : clinical psychologist, clinical psychology training courses, training model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